

2021년 한복교복 보급사업 참여학교 모집 **2차 공고**

한복 입고 학교 가자



- 대상자** 교육부 인가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 중 한복교복 착용을 희망하는 학교
- 접수기간** 2021년 8월 23일(월) ~ 9월 17일(금) 16:00
- 선정규모** 총 5개교 내외
- 지원내용** 1. 한복교복 도입을 위한 교복선정위원회 교복설명회 지원
2. 학교별 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한복교복 디자이너 파견
3. 한복교복 구입 지원
- 접수방법** 학교장 명의의 전자공문 제출 후 공문본문과 첨부서류 이메일(hanbok-unifom@kcdf.kr)로 제출
- 문의처** 한복산업팀 02-398-1631 ~ 1632 | hanbok-unifom@kcdf.kr

※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누리집 내 공고문 참고

한복진흥센터 2021년 8월

특별기획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는?

08 vol.469

2021 AUGUST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꿈이 영그는 현장

강원 죽왕초등학교
자연에서 배우는 작은 학교 아이들

46 정책을 말하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 체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48 교육웹툰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50 진로직업인

미래 캐스터_황준원 미래채널MyF 대표
"미래를 예보합니다"



우리교실에! 기가 막히는 기가 와이파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세상은 하루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교실이 보다 빨라졌어요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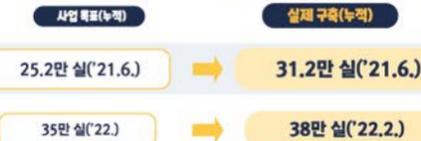
보다
빠르게

보다
새롭게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기가급 무선망 보급으로 새로워진 '우리 교실'을 만나보세요~

학교 무선망 구축 목표 초과달성
기가급 무선망으로 교실의 무한한 확장!



교내 모든 학습공간에서 간편하게 무선망을 이용하도록 당초 계획한 25만 실 보다 6만 실을 초과하여 무선망 설치를 완료하고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실이 보다 새로워졌어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한 교실에서 동시에!

충북, Y중



"AI 랭수"를 통해
맞춤형 영어회화 학습을!

대구, S초



체육관에서 AR을 이용해
신나는 신체활동!

충남, A초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로 학교 수업이 한층 다채워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어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실 너머 보이는
미래교육의 희망!

수업 중에 필요한
인제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아요!

학생 개개인의 기기에
스스로 양상을 잡고
반영적으로 학습 하며
효율이 높았어요

수업 중
공감한 게 생겼을 때
컴퓨터상에 가지 않고
자리에서 검색해볼 수
있어서 편해요



교실의 반가운 변화
미래교육 대전환의 기반이 됩니다.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9 2021 **AUGUST**

12

교육포커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전국 첫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14~16세)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4명 중 1명은 '재범'의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해봤다.



누군가의 '놀이'는 '범죄'가 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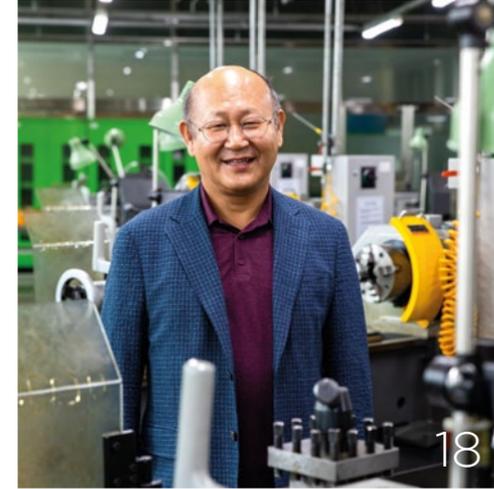
특별기획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던 교육계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여름방학 동안 충분한 방역 인력을 지원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지침을 보완하는 등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등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불암초와 대전중일고 사례와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준비사항, 그리고 코로나19 속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교육 동향을 살펴봤다.



교육공동체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_ 서울불암초교, 대전중일고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①초·중등교육 ②고등교육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①미국 ②프랑스 ③영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지방의 작은 학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교생 51명의 강원 죽왕초등학교(교장 김상배)도 올해 3월 개학 후 출근 등교수업을 하며 학습·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혜란 교사가 등교하는 1학년 학생들을 반기고 있다.

발행일 2021년 8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민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감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교육포커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누군가의 '놀이'는 '범죄'가 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

26 **특별기획**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는?
 교육공동체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_ 서울불암초교, 대전중일고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①초·중등교육 ②고등교육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①미국 ②프랑스 ③영국

04 **꿈이 영그는 현장**
 강원 죽왕초등학교
 자연에서 배우는 작은 학교 아이들

09 **네 꿈을 펼쳐라**
 순천효산고등학교 연극동아리 '미라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연극무대

18 **삶과 교육**
 안희원 대구 일마이스터고 교장
 지방 기업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길

22 **교실혁명**
 '연·탐·상·관' 활동을 통한 역사 토론 수업

43 **교육자치시대**
 충청남도교육청_일제 잔재 청산 사업
 광복 이후 76년, 학교에는 여전히 '일제가 남아있다'

46 **정책을 말하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 체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48 **교육웹툰**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50 **진로직업인**
 미래 캐스터 황준원 미래채널MyF 대표
 "미래를 예보합니다"

54 **일상의 심포**
 안동, 철길이라는 가시를 뺐다

58 **이야기 인문학**
 '갑질'은 버리고 '미적 가치'를 연마할 때

61 **이달의 교육뉴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외

62 **명예기자 리포트**
 온택트 워크숍 '방구석 프로그래밍' 탐방 외

64 **숫자로 읽는 교육**
 1882년

강원 죽왕초등학교

자연에서 배우는 작은 학교 아이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죽왕초등학교(교장 김상배)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산과 바다, 호수가 지척인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자란다. 아이들에게 마을은 또 다른 학교고, 마을 주민은 선생님이다. 전교생 51명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모두 친구이자 형제가 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죽왕초에 다녀왔다.

글_ 양지선 기자

교문을 들어서자 우측에 풀밭을 따라 돌길이 이어진다. 징검다리 건너듯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아담한 2층 건물이 반긴다.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건물 정문에는 '어 울러 배우고 나누어 행복한 작은 학교'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의 농어촌 작은 학교인 죽왕초등학교다.

고성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10% 이상 줄어 강원도 내에서도 지방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1965년 문을 연 죽왕초도 2015년에는 전교생 수가 30명대까지 감소했다. 학교는 작은 학교여서 가능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형 생태교육과 마을 공동체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교생은 51명으로, 이 중 고성군 이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절반가량이다. 학부모들이 인근 학교 대신 멀더라도 죽왕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상배 교장은 "시내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죽왕초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일 등교수업을 이어왔고,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가능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 1 죽왕초는 작은 학교여서 가능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형 생태교육과 마을 공동체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2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아담한 2층 건물의 죽왕초 전경
- 3 전교생 51명의 죽왕초는 교사와 아이들 간 유대관계가 깊다.





마을은 제2의 학교

죽왕초의 특색 프로그램은 마을과 연계한 활동이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마을캠프는 동네를 둘러보며 마을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생태 체험을 통해 감수성도 기르는 시간이다. 지난해에는 학교 인근 송지호 일대의 식생을 살펴보고, 호수가 생겨난 과정에 대해 배웠다.

올해는 지난 7월 8~9일 이틀간 마을캠프가 펼쳐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봉수대해수욕장에서 래프팅 체험을 하고, 이튿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송지호 둘레길에서 플로깅(Plogging·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했다. 각 교실에서 진행된 공예 체험은 본래 마을교사가 이끌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반 담임 교사의 지도로 이뤄졌다.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마을교사로 임명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2학기에는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마을 운동회와 김장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김상배 교장은 “마을 연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게 된다. 진로, 직업과 연계해 배울 점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오명환 교감은 “학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학부모들이 마을교사, 사서도우미, 방역도우미로 자원해서 오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학교의 여러 활동에 협조적으로 참여하신다.”라고 덧붙였다.

죽왕초 아이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모두 친구이자 형제처럼 푹푹 뭉치는 모습이 돋보인다. 학생수가 적어서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매달 진행되는 ‘우리는 형제’ 프로그램 덕분이다. 학교는

66

아이들에게 마을은 또 다른 학교고, 마을 주민은 선생님이다.

99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 명씩 모아 형제로 구성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팀별 활동 시간에는 형제들끼리 만나 팀 이름과 구호를 정하고, 이후 팀 대상 축구대회와 보드게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진다. 이번 마을캠프에서도 형제팀끼리 직접 장을 본 재료로 운동장에 함께 모여 저녁을 만들어 먹고, 팀별로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했다.

조혜란 교사는 “팀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이끌고, 동생들도 진짜 자기 형제처럼 선배들을 챙긴다. 외동아이들에게 형제가 생기고, 선후배가 협력하며 다 같이 어울려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인성교육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친구이자 형제가 되는 학교

죽왕초의 또 다른 강점은 교내 자율장학이 활성화돼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진행된 만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개수업과 학년별 수업 연구를 이어왔다. 교사들은 각자 수업에 대해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사전에 협의하고, 공개수업 참관 후 피드백을 나눈다. 이런 수업 연구 시간을 통해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매주 수요일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에는 주제별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 연수가 이뤄지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교는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에서 영어와 스포츠 캠프를 운영,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지 않게 돕고 있다. 평소 등하교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학 차량이 운행되어서 학부모들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다. 김 교장은 “학교에서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한다. 덕분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죽왕초는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체육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유휴공간이 부족했던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교과 수업,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학교는 지역 주민들에 체육관을 개방해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4 "내가 만든 무지개 물고기 어때요?"

1학년 학생들이 공예 체험 시간에 직접 꾸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56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송지호 둘레길 플로깅(Plogging·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을 한 죽왕초 아이들



김상배 죽왕초등학교 교장

올해 3월 죽왕초에 새롭게 부임한 김상배 교장은 교장실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함께 소통하는 의미다. 김 교장은 부임 후 학년별로 아이들과 교장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바 ‘행복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교장실에는 과자와 사탕이 항상 준비돼있고, 함께 노래 부를 때 필요한 기타도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을 표현하는 법,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김 교장은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야 좋아하는 것도 찾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부에만 매몰돼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며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라고 했다.

Q1 _____ 죽왕초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보통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분들이다. 올해 처음 발령된 선생님도 계신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교육대학에 진학하신 분으로 신규 교사답지 않게 침착하고 아이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신다. 작은 학교여서 인지 선생님과 아이들의 유대관계가 무척 깊고, 아이들이 가족처럼 선생님을 따른다. 교사와 학생 간 벽이 없고 친근한 것이 학습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된다.

Q2 _____ 교장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독서교육(Book), 음악교육(Talent/Technique), 체육교육(Sports)을 합쳐 ‘BTS’ 교육이라 이름 붙였다. 독서교육으로 어휘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예체능교육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을 직선이 아닌 원형에 놓고, 한 가지 진로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자 재능을 찾도록 하고 싶다. 학부모들께도 아이들에게 너무 빠른 성과를 바라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린다.

Q3 _____ 앞으로 학교 운영 계획은?

체험활동을 더욱 다양화해서 아이들의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 창의성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발달한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 등 작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시민교육도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시간에 녹이고 싶다.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여러 문제를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강조하려 한다.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꼭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유린타운> 공연 후 촬영한 미라클 단원들과 김금삼 교사(맨 왼쪽 위)의 모습

순천효산고등학교(교장 최상경) 연극동아리 ‘미라클’이 올해로 33년을 맞았다. 1988년 학생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에서 교육연극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코자 연극동아리를 만들었고, 당시 연극무대 경험이 있던 김금삼 교사가 동아리를 맡으면서 ‘미라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김금삼 교사는 “초창기에는 아이들과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한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미라클’은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극인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글_ 이순이 편집장

<우월한 나라> 무대에 올린다

6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5명의 학생은 몸에 딱 맞는 책상에 앉아 수업하고 한 명은 제 몸보다 훨씬 작은 책상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수업하지만,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다. 위축된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싸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이는 순천효산고등학교 연극동아리 ‘미라클’의 <우월한 나라>(이민지 작) 공연 속 한 장면이다. <우월한 나라>는 ‘나라’가 전학 온 뒤 묘하게 비틀어진 2학년 2반의 일상과 평화로웠던 아이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반장선거가 한창인 새 학기. 성실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나라’와 매사 성실



2021년 작품 <우월한 나라> 공연을 마친 미라클 단원들

배우와 스태프가 함께 만드는 무대

‘미라클’에는 현재 총 28명의 동아리원이 활동하고 있다. 배우팀, 음향 스태프, 조명 스태프, 의상소품 스태프로 각자 역할을 나눠 전원이 매년 공연에 매달려왔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소 인원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했다. 학생들은 모두가 참여하는 공연이 아니었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무대에 작품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

3월경 동아리원이 확정되면, 연출, 조연출, 동아리 지도교사, 연극지도 강사 등이 모여 어떤 작품을 할지 결정하고 이후 한 달간 본격적으로 배우 캐스팅을 진행한다. 배역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캐릭터 분석과 함께 대본리딩을 시작한다. 이때 의상소품 스태프도 캐릭터에 어울리는 의상과 소품에 대해 고민한다. 5~6월 본격적으로 배우 간에 대사를 맞춰보고 실제 무대를 상상하며 동선도 확인한다. 공연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우의 움직임 등을 살펴며 음향·조명 스태프도 분주해진다. 연출을 맡았다는 배지민(3학년) 학생은 “갑작스럽게 배역이 핑크가 나면서 대타로 일진 중 톨마니 역할을 맡게 됐다.”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우월한 나라>라는 작품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말한다. ‘나라’ 역할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정유아(3학년) 학생은 “연극의 특성상 배우들이 함께 대사도 맞춰보고 동선확인도 해야 하는데, 연습할 때마다 꼭 한 명씩 빠지는 상황이 생겨 연습에 애를 먹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연극 통해 인내심, 끈기, 협업능력 배운다

33년째 연극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김금삼 교사와 ‘미라클’ 단원은 초창기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다. 김금삼 교사는 연극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한국교사연극협회 등에

하고 올곧은 ‘하루’가 후보로 나섰다. 즐겁고 화목할 것만 같은 교실은 뭔가 불편하다. 나라는 교묘하게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이를 묵인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권력을 유지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왕따가 됐든, 왕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1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아빠는 제가 성적이라도 떨어질까 봐 감시하고 때리고, 엄마는 매일 울고. 그런 제가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어요? 아무나 왕따를 만들어서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왕따는 그냥 저의 감정 쓰레기통이라고요.” 관객을 향한 나라의 당돌한 외침은 학교의 어두운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진다. <우월한 나라>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2회 순천청소년연극제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개인부문에서 최우수연기상(정유아)과 우수연기상(오병헌), 무대조명상(서동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6월 29일 순천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예선과 제31회 전남청소년연극제에서는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배지민 학생이 연기대상과 우수연기상을, 서동건 학생이 무대기술상(조명)을 각각 수상했다.

가입하여 교육연극과 연극치료를 체계적으로 배웠다.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했고 초창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서 학교예술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지금은 예산 걱정 없이 오롯이 학생들과 연극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 교사가 공연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연극지도 강사가 학생들의 발성과 연기 등을 맡아서 가르친다. 매년 연극제에 출품하는 이유에 대해 김금삼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표를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무대에 올라 관객과 오롯이 마주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때문에 완성도 있는 무대를 위해 학생들은 목표를 정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극에 빠져든다. 이 과정에서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 “아이들은 연극에서 한마디를 하기 위해 3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연극은 인내심과 끈기, 협업능력, 배려심,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연극을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며 자신감을 연습니다. 33년간 교육연극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면 무대는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구슬땀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하고 때로는 수상의 기쁨으로도 이어진다. 다양한 무대 경험은 사회생활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연극무대를 향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올해 고3인 배지민, 정유아, 오병헌 학생은 ‘미라클’에서 배우의 꿈을 키워왔으며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Mini Talk



배지민 3학년

올해 <우월한 나라>(이민지 작(作))를 두 차례 공연했어요. 초기엔 연출을 맡았는데, 공연을 앞두고 톨마니역을 맡은 배우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제가 배우로 투입됐어요. 미라클은 저에게 연극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알려줬고 지금은 저의 꿈이에요. 연극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연극을 통해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유아 3학년



제가 맡은 ‘나라’라는 아이는 직접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아이예요. 저에게 연극이란 ‘새로운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의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미라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학급 임원을 맡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오병헌 3학년

연극을 하면서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이입되어 배역처럼 변해있는 저를 발견하곤 해요. 연극을 하면서 학교생활이 완만해졌고 성적도 많이 향상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행동에自制력이 많이 생긴 거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대사가 너무 많아 암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시도 손에서 대본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동건 2학년



작년에는 배우를 맡았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속도나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배우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 생겼어요.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움도 크지만,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명을 맡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오윤서 1학년

‘하루’역은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캐릭터예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면도 있어요. 저는 성격이 소심하면서도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연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발음도 좋아졌어요. 연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연습하고 어울리며 구슬땀을 흘렸던 모든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누군가의 ‘놀이’는 ‘범죄’가 된다

글_ 이명화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전국 첫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14~16세)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4명 중 1명은 ‘재범’의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해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와 n번방, 이 시기에도 상담실은 붐빈다

“김모(13)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였다. 김군은 인터넷에서는 ‘지인합성’이 흔한 일이라 장난삼아 한번 따라 해봤다고 했다.”

“이모(13)군은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여 다운받았으나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상담을 의뢰하였다. 이군은 채팅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운받았고, 자신은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억울해하였다.”

“강모(17)군은 SNS에서 ‘지인 합성’ 광고를 보고 여자친구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업체는 의뢰한 강군을 되려 협박하여 엽기 동영상을 찍게 하고 강군의 신상정보와 동영상을 유포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 상담실에 의뢰된 청소년 중에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청소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이다. 성교육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4~2016년에 또래 간 성폭력 사건에 주목하고 상담사례를 분석해 세미나를 여는 등 관심을 모았었다. 또래 간 성폭력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었다. 이에 2019~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상담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담자를 훈련하고 이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총 91명의 가해 청소년 상담분석결과¹를 보면 피해자와의 관계는 친구관계(44%), 그중에서도 이성관계(69%)가 가장 많았고 행위 특성에서 가·피해 행위는 주로 일대일(74%)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가해유형 분류에 의하면 1순위는 통신매체 이용(43%), 2순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19%), 3순위는 불법촬영물 소지 등(11%), 4순위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5%), 5순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3%)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가·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사례는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이나 성표현물을 거리낌 없이 펼쳐보는 행동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하고 끊임없이 성적 대화를 할 상대를 찾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를 주도하고 포르노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누구인가?

사례분석 결과 청소년 가해자의 주된 연령은 13~16세 중학생(57%)이며 주 양육자인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가정 내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범죄 경력 등

¹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2020), 청소년디지털성폭력상담사례분석

기타 학교에서도 특별히 징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다. 표면적으로 대상에 따른 특이점이 없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 사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변인들이 예측하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문화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많은 부분이 형성되고 소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디지털 문화가 자신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향시 접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라는 경각심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안이 크게는 범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상호 소통 속에서 게임, SNS, 영상물 공유, 유포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죄의식이 매우 희박해질 수 있고, 다수 구성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범죄로 드러나기 전 잠재된 청소년이 많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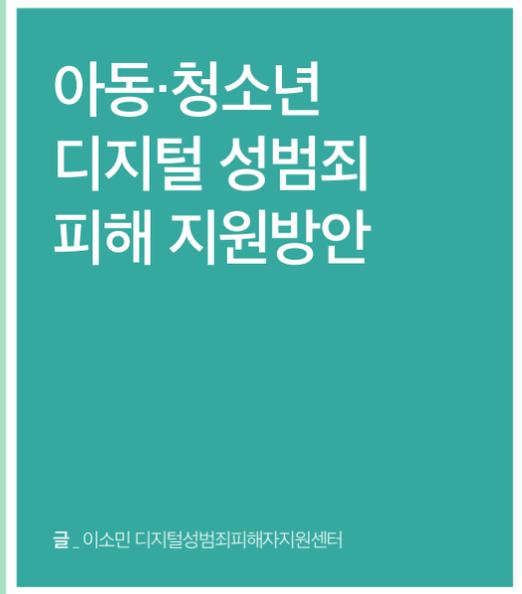
가해 연루된 청소년들, 피해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일반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비해 범죄 인식 정도가 낮다. 일반 성폭력 가해자들은 범죄행위를 숨기는 반면,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불법촬영물을 SNS 유포 등을 통해 공유 및 게시하는 등 또래 간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관계 맺기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관계유지와 소속감을 갖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방관자 혹은 행위자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타인을 주로 약자로 선택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오프라인에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아 매우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 가해자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가벼운 수준(게임상에서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발언 등)에서 성범죄를 시작하여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관계 맺기 허용범위를 넓혀나간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때로는 범죄대상자를 찾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포착되어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가·피해 행위가 혼재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의 그늘, 디지털 시민성 시급!

작년 n번방에 이어 최근 검거된 남성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성착취 먹이사슬은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미끼를 던지고 있다. 무엇이 디지털상에서의 범죄인지 그 유형과 처벌법을 알게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고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②



2020년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피해자 4,973명 중 1,204명(24.2%)이 10대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이다. 10대 피해자 1,204명은 총 1,803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589건, 32.7%), 유포불안(362건, 20.1%), 유포협박(312건, 17.3%), 유포(221건, 1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연령대에 비해 사진합성(191건, 10.6%), 사이버 괴롭힘(82건, 4.5%) 유형 역시 높게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 전 유형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해자 현황은 채팅 상대 등 일시적 관계(347건, 28.8%)가 가장 높았으며 애인 등 친밀한 관계(23건, 1.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나듯 일시적 관계에서의 온라인 그루밍¹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양상 변화가 1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위험을 인지하고 벗어나기

“네 사진을 찍지도 말고 올리지도 마라”, “채팅 앱을 사용하지 마라” 등 규제 중심의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온라인 환경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화상채팅 앱을 통한 대화 상황을 가정해보자. 채팅 상대와의 대화 도중 나의 화면이 동의 없이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시를 충분히 설명한다. 목적은 상황 판단력과 대응력 강화이므로, 화상채팅 앱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화상채팅 시 성적 이미지가 송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하기

앞서 피해 예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피해자 상을 그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적 이미지를 직접 올렸거나 온라인으로 만난 채팅 상대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등 피해 발생 이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의 원인으로 두는 듯한 설명을 삼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순결한 피해자 상”을 전달할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질책,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가 고립된 상태에 놓일수록 가해자는 피해 상황을 주도하고 추가로 피해를 확산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기관 정보와 접수 절차를 미리 안내하기

피해 발생 여부를 떠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명확한 접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유포 피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관건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¹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센터를 통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모든 지원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수사·법률·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기관명	상담 전화	비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게시판 상담) d4u.stop.or.kr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게시판 상담) onestop5170.kr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카카오 채널) @031cut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031-751-1120	(카카오 채널) sndigital (이메일 상담) snwhl@naver.com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055-1366	(게시판 상담) women1366.or.kr (카카오 채널) '1366 경남' 검색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054-727-9595	(게시판 상담) phwomen.org
대구여성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215-6487	(게시판 상담) dwhotline.or.kr (이메일 상담) dwhotline@hanmail.net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2	(게시판 상담) wopower.or.kr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063-236-1366	(게시판 상담) svpcc.net (이메일 상담) svpccfc@naver.com
제주YWCA 통합상담소	064-748-3040	(게시판 상담) woman3040.or.kr (이메일 상담) woman3040@naver.com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041-1366	(게시판 상담) chungnam1366.or.kr (카카오 채널) '1366 충남' 검색

삭제지원이나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을 취하기 전 보호자로서 안내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01 피해 촬영물을 파일 형태로 저장한 상황인지 확인한다. 캡처 화면은 재유포 피해를 추적하는 데 있어 검색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피해 촬영물을 직접 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저장한 상태인지를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02 피해 촬영물이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으나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어려운 경우, 유포 게시물의 URL 또는 제목 등으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는 피해 촬영물을 특정하여 지원에 착수하게 된다.

03 불법촬영 피해 등으로 촬영물을 확인 또는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촬영 기기에서 촬영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구성요건이 갖춰진 때에는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할 경우 피해 촬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04 유포나 재유포 피해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센터에 증거수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접수 시 의사를 밝혀 유포 내역에 대한 증거수집 자료를 받아 신고 시 제출한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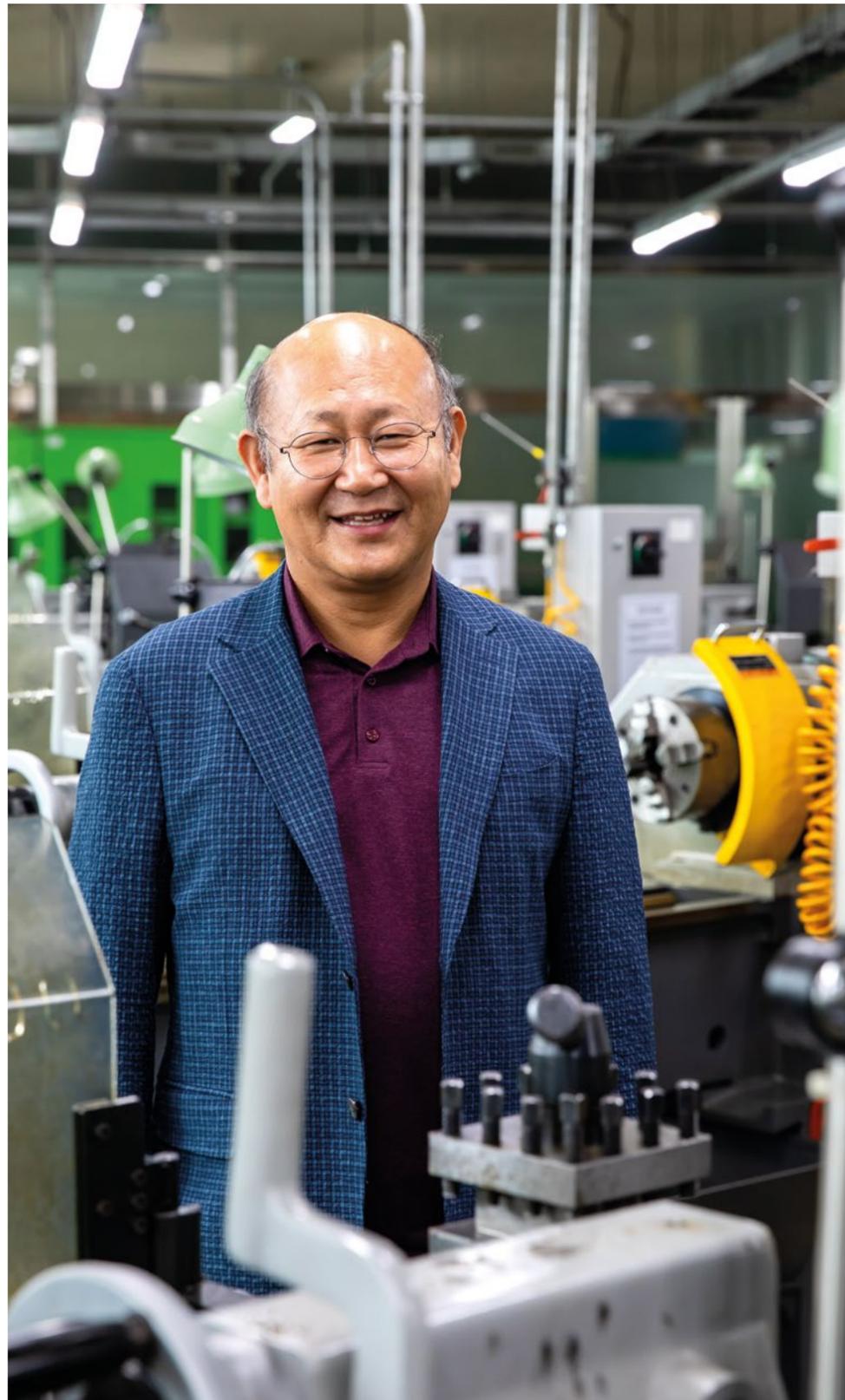
150%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
**지방 기업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길**

안희원

대구
 일마이스터고
 교장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대구일마이스터고는 5년 연속 졸업생 취업률 100%를 기록하며 마이스터고 본연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수행해 가는 중이다.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대군강해 프로젝트'라는, 학생 맞춤형 취업 전략을 이행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오고 있는 안희원 교장을 만났다.

글_ 김혜진 객원기자



66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스스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의 중산층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99

전국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점차 상승곡선을 그려가는 중이다. 산업현장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된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목격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 달리 정석의 길을 걷는 학교도 있다. '선취업·후진학' 문화를 확산시키며 5년 연속 졸업생 100% 취업을 달성해 온,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대구일마이스터고다. 3년 전 공모를 통해 이 학교에 부임한 안희원 교장은 '대군강해 프로젝트'라는 맞춤형 취업 지도로써 대구일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7월 초순 현재, 3학년 학생 중 78%가 이미 취업이 확정됐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이 '대군강해 프로젝트'에서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3학년생 모두 취업에 성공,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는 학생들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맞춤형 취업지도 '대군강해 프로젝트'

'대군강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취업을 '대기업과 공기업, 군 부서관(기술병), 강소기업, 해외기업' 등 4개의 경로로 각각 나누어 맞춤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4개의 경로 중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취업 부문에서 변동사항이 생겨 잠시 주춤한 상태라면서 안 교장은 재차 아쉬워했다.

"독일의 대규모 전력회사인 바텐팔 등 마이스터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도 이미 우리 졸업생이 진출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독일의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 시설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는 무척 놀라면서 돌아갔죠. 독일 현지보다도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었다는 평가였어요."

안 교장은 부임하면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 기자재 등 교육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교실수업 개선 등을 최우선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90% 정도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게 안 교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현장탐방 등 일부 난관을 겪고는 있지만, 독일어 방과후 수업과 줌을 활용한 독일 현지와의 원격수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부임과 함께 학생들에게 강조한 또 다른 덕목은 바로 인성교육. 이를 위해 매일 아침 태권도 수업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10km 달리기 마라톤 대회도 연 바 있다. 또 매일 아침 책임기는 이곳에서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했다.

"부임하기 전, 여러 기업의 CEO들로부터 인재 채용 조건에 대해 경청했죠.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인성'이었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회사에서 직접 가르칠 테니, 인성교육만큼은 학교에서 책임져 달라는 주문이었죠."

강소기업에서 CEO가 될 때까지 꿈꾸라!

‘대군강해’ 4개의 선택지 중 안 교장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지점은 바로 ‘강소기업’이다. 졸업 후 기업에서 기술을 익히고, 명장이 되어 그 기술을 기반으로 CEO로서 기업을 일구어나가는 성장단계는 오롯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모델이 바로 기능인 양성이라는, 마이스터고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된다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해 보면, 대기업 선호라는 뿌리 깊은 인식은 여전히 장벽처럼 다가오기도 한단다.

안 교장의 임기 동안,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앞으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3개 과 중 2개 과의 명칭부터 달라진다. 자동차부품가공과와 자동차금형가공과가 정밀기계과와 금형설계 제작과로 각각 개명된다. 단지 명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정에서도 30% 이상 새롭게 재구성하여 가르치게 된다.

“내년부터는 졸업생들의 자격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 취득하던 ‘기능사’ 대신, 전문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수준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이와 관련한 커리큘럼도 조금씩 변화를 줄 계획이고요. 또 자동차생산 부문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니만큼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등 새로운 교재개발도 학교 차원에서 진행 중이죠.”

이미 전국 특성화고의 전기차 등 관련 교재 리스트에 대한 검토와 분석까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구일마이스터고만의 교육과정이 수록된 자동차 관련 교재를 새로 개발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도 취업률 100% 달성 순항 중

대구일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이 원칙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인 1실이 2인 1실로 조정되면서 현재 절반의 학생은 통학으로 전환된 상태다. 안 교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층인 기숙사동 증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등하교 시행으로 매일 오전 6시 진행되던 전교생의 태권도 수업도 오후 8시로 이동했다.

“태권도 수업이 오전에 진행될 때는 새벽 5시 30분이면 저 역시 학교에 출근해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아이들의 힘찬 태권도 수업 시간이 시작되죠. 아침잠이 별로 없어선지 저로서는 교실에 있는 내내 출근 시간 1~2등 자리는 놓쳐본 적이 없어요(웃음).”

지난 7월 9일 오전, 인터뷰를 마친 안 교장은 학생들이 한창 땀 흘리며 실습 중인 가온누리관과 나래관(이 실습동의 이름도 안 교장이 부임하면서 새로 지었다)으로 취재팀을 안내했다. 이곳에서 만난 자동차생산자동화와 3학년 윤승주 학생은 얼마 전 대구지역에서 열린 산업로봇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자라고 안 교장은 귀땀했다. 안 교장은 “승주 학생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라면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로봇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자랑했다.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만큼 그동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멀리서 경기도 파주, 광주광역시 등에서 지원한 학생도 있고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여학생 8명도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런 만큼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스스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의 중산층으로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12 안 교장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지점은 바로 강소기업이다. 기업에서 기술을 익히고 명장이 되어 그 기술을 기반으로 CEO로서 기업을 일구어나가는 성장단계는 오롯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 기업들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쑥쑥 성장해 나아갈 테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특히 남학생들의 군대 문제, 산업 기능요원으로서의 역할 등 국가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 기업을 방문해 보면, 저성장 시대의 장기침체로 외려 인원 감축 등을 호소하는 대표들도 자주 만나게 된다는 안희원 교장. 이곳에 부임 이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발로 뛰며 취업처를 확보해 나간 일화는 미디어를 통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이지만 안 교장은 “대구일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해 이미 150%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놓았다.”라면서 내년에도 취업률 100%, 6년 연속 달성의 순항을 확신했다. ㉠



‘연·탐·상·판’ 활동을 통한 역사 토론 수업

글_ 김중원 경북 수비고등학교 교사



- 연** 오늘 배울 수업 내용과 주제의 연대기 파악
- 탐**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
- 상** 당시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들 상상
- 판**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적 판단을 내림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작은 산골 지역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 ‘나는 공부해도 안 돼’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몇몇 학생들. 이 모든 상황이 당시 5년 차 역사 교사인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으며 당시 제 수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둘째, 학생들이 역사과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셋째,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역사 수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제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취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연·탐·상·판’이라는 수업 활동을 구상하여 학생들의 역사과 핵심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탐·상·판’이란 제가 수업 매 차시마다 실시한 수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활동은 오늘 배울 수업 내용과 주제의 연대기를 파악하고, ‘탐’ 활동은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며, ‘상’ 활동은 당시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들을 상상하고, ‘판’ 활동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탐·상·판’ 수업 활동과 함께 여러 형태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듣게 되고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버즈 토의¹’, ‘모의재판’, ‘하브루타²’, ‘갤러리 워크³ 자료를 활용한 토의’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 수업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 1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소집단 토의법
- 2 짝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토의법
- 3 마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걷는 것처럼 교실을 돌아다니며 각 모듈 또는 개인이 도출한 결과물을 살펴보는 학습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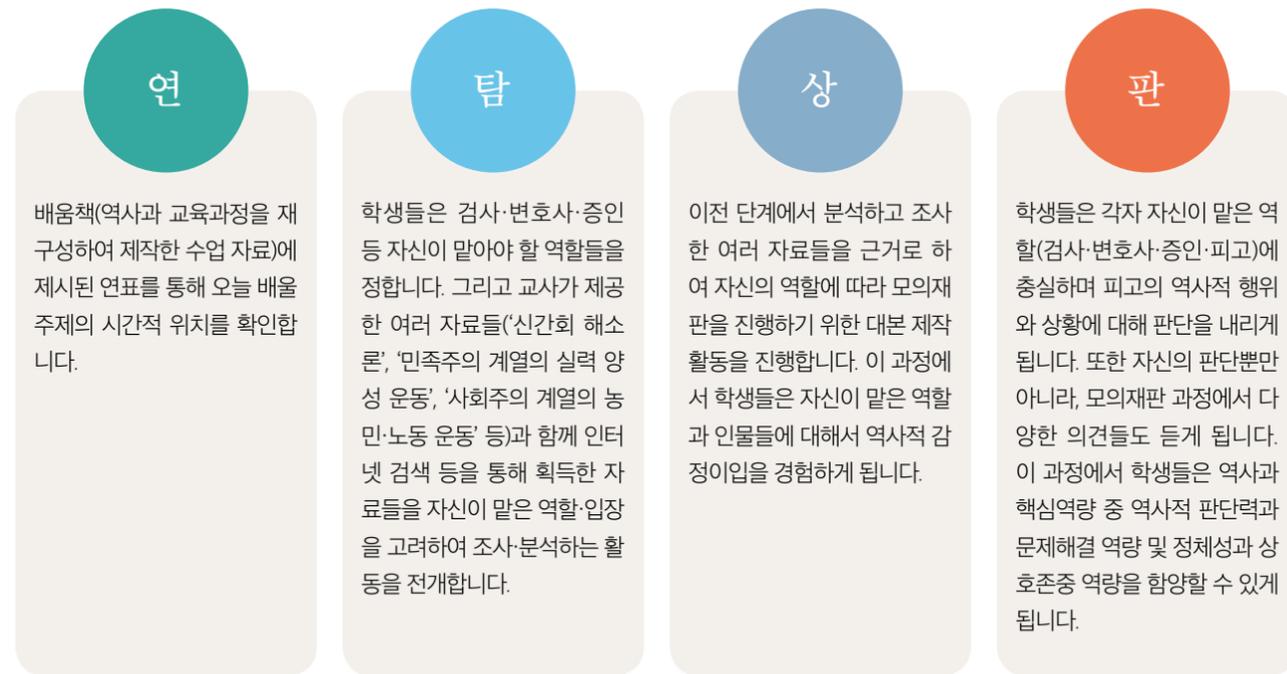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면 수업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99



모의재판을 통한 토론 수업 사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1920년대 우리나라 안에서 전개된 다양한 독립운동'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토론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모의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의 교직 생활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모험적인 일이었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께도 공개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했던 흐름은 아래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난 후, 모의재판에 대한 배심원들의 결정과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바뀌게 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된 교실

이러한 형태로 '연·탐·상·판'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고수했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수업 시간에 듣지 못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형태의 토론 수업을 적용하니 교실이 교사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인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면 수업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 수업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고등학교 수업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은 빠진 주제나 내용에 대한 보충 학습을 통해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토론 진행이 힘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나 판단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으로 학생들의 입장이 치우치면 그 학생들 일부에게 배심원 역할을 주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후, 배심원 역할을 했던 학생들의 입장 변화나 토론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탐·상·판'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여러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난 후, 현재 저는 새로 옮긴 더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인성교육에 접목시켜 학생들의 인성 핵심 가치 덕목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㉔

12 다양한 형태의 토론 수업을 적용해 교실이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특별기획① -교육공동체의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서울불암초등학교, 대전중일고등학교 교육공동체의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글_ 이순이 편집장

서울불암초등학교

7월 8일 오전 10시 50분, 3교시 원격수업을 끝낸 서울 불암초 금도경(6학년) 학생은 다음 수업을 위한 등교 준비를 서두른다. 11시 20분경 교실에 들어선 도경 학생은 등교 확인을 거친 후에 11시 30분쯤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이동해 조금 이른 점심을 먹는다. 4교시(12:00)는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금도경 학생은 “지난해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며 “매일 등교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교우관계도 수업태도도 좋아졌다.”라고 말한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초등학교(교장 김성희)는 전교생이 926명으로 서울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한다. 비슷한 규모의 많은 학교가 밀집도 2/3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1학기 학사운영을 해왔지만, 불암초는 방역을 강화하고 시차 등교와 시차 급식을 통해 매일 등교를 유지해 왔다. (7월 12일부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밀집도 분산을 위해 1~2학년의 경우, 매일 오전에 등교한다. 월·수·금은 8시 50분, 화·목에는 오전 9시 30분에 각각 1교시를 시작한다. 40분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블록타임으로 운영하며, 오후 12시 15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급식을 먹고 하교한다. 3~4학년은 오전 8시 50분에 1교시를 시작하여 오후 12시 15분에 5교시 수업을 마친 후 급식을 먹고 하교한다. 6교시가 있는 화요일은

여름방학,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학기 등교 확대를 준비하던 교육계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밀집도가 높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지에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의 학사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학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시차 등교와 시차 급식 등을 통해 매일 등교를 추진해온 서울불암초등학교와 대전중일고등학교를 다녀왔다.



고학년이 등교할 때쯤 저학년의 하교가 이뤄진다.



특별기획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한 준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곧바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대부분 학교는 그대로 여름방학을 맞았다.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던 교육계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여름방학 동안 충분한 방역 인력을 지원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지침을 보완하는 등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등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불암초와 대전중일고 사례와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준비사항, 그리고 코로나19 속 미국, 프랑스, 영국의 교육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교육공동체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서울불암초교, 대전중일고교

31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①초·중등교육 ②고등교육

36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①미국 ②프랑스 ③영국

특별기획①-교육공동체의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집에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과제학습을 하며 보낸다. 반면 5~6학년은 1~3교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4~6교시에는 각 교실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70분의 여유시간이 있는데, 이때 학생들은 등교를 준비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하교하는 1~4학년과 학교 공간을 교대로 사용한다.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1~4학년과 달리 5~6학년 담임과 교과전담교사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수업에 대한 피로도가 훨씬 크다고 한다. 김정규(6학년 담임) 교사는 “원격수업은 새롭게 준비해야 하며 대면수업은 기존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에 힘든 것은 사실이다. 원격수업의 장점과 대면수업의 제한적 환경을 고려해서 수업하고 있다.”라며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매일 만나고 소통하면서 생활지도, 학습확인, 학생 건강상태 체크 등이 원활해졌다. 학교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다. 전면 등교를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매일 등교에 대한 불암초 교육가족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6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80% 이상은 매일 등교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괄목한 만한 부분은 선생님들의 답변이다. 이 질문에 교원의 23.8%는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76.2%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매일 등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900명이 넘는 학생이 매일 등교하는 만큼 불암초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항상 싸우고 있다.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방역 인력은 총 8명으로 이들은 학생들이 교실을 드나들 때 만지는 문고리나 화장실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학교 방역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손꼽히는 것이 ‘급식’이다. 불암초는 2개의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서울불암초

- 1 오전 수업 중인 저학년 교실
- 2 오전 수업 중인 중학년 교실
- 3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급식(고학년)



급식실과 일부 교실에서 시차를 두고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정 좌석으로 운영되는 급식실과 교실에는 모두 개인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경아 교사는 “1학년은 별도의 급식실에서, 3학년은 각 학급 교실에서, 나머지 학년은 시차를 두고 급식실을 이용한다.”라며 “오후 수업이 있는 5~6학년이 먼저 급식을 마치면 방역 요원이 중간에 한 차례 소독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학교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1~4학년은 오전 수업을 마친 후 바로 귀가할 수 있으며, 5~6학년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등교할 수 있다.

이경아 교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누가 시켜서 했다면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일 등교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가정에서 뒷받침이 되고 학교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한다.

대전중일고등학교

대전중일고등학교(교장 임재정)는 코로나19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새 학년 학사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중일고는 전교생 642명에 24학급 규모로 학급당 학생 수는 26.8명 수준이다. 밀집도 1/3 상황에서는 고3 중심의 등교가 이뤄지며, 밀집도 2/3 상황에서는 3학년은 매일 등교, 1~2학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사실상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재정 교장은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4 대전중일고 2학년생들이 오후 등교를 하고 있다.

특별기획① -교육공동체의 힘 모아 매일 등교 추진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생님들은 학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과 치열하게 고민했다.”라고 말한다.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밀집도 2/3 상황에서 전교생이 등교하는 지금의 학사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을 촘촘하게 준비했다.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은 평소보다 이른 8시에 등교하여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12시 25분경 하교한다. 5교시 원격수업은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된다. 반면 오후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9시경 원격수업을 시작해 3교시 수업을 마친 후 등교를 준비한다. 오전에 등교한 학생들이 하교하는 12시 25분쯤 오후 등교가 이뤄진다. 오후에 등교한 학생들은 급식 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면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50분에서 45분으로 축소하여 운영 중이다.

이재하 교감은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은 등교수업 시간표를 연속으로 편성할 경우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라며 “과목별 단위수를 고려하여 시간표를 고르게 편성했다.”라고 말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과목은 75% 이상을 대면수업으로 구성했다. 그밖에도 학년을 교차로 수업하는 교사나 이동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 요일별로 시간표에 반영했다. 예를 들면, 3학년 화학과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맡은 과학 선생님의 경우, 월·화·수는 1학년 시간표에, 목·금은 3학년 시간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등교가 1시간 빨라진 만큼 늘어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학교는 대안으로 교사 탄력근무를 도입했다. 오전 등교 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등교 시에는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시차 등교에 대해 중일고 학생·학부모는 66.7%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활 및 학습태도의 개선’과 ‘학업 결손 최소화’를 꼽았다. 향후 시차 등교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생활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김세희(2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기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다는 느낌이 없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의 소통이 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설명한다. 임재정 교장은 “지난 한 학기 매일 등교를 해봤더니 밀집도를 준수하고 자가격리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이 확산 되지 않더라.”라며 “조바심을 내지 않고 지금처럼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2학기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



5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 급식을 하고 있는 중일고 학생들
6 오후 등교한 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특별기획②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①초·중등교육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①초·중등교육

방역 더 철저히, 급식 방역↑, 교직원 백신 접종↑

글_ 김희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

남은 기간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취약요소를 발굴하며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7월 12일(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는 다시금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1년 반 동안의 코로나19 상황 속,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우리가 겪은 학습·심리·정서상 결손,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실제로 2020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역당국 및 학교현장과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이 낮다는 점,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간의 학교 방역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계도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급식 운영과정 상 취약요소 보완, 방역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165만 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81.4%가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등교 확대 대비 학교

[표1]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

우선 확대 (1학기)	전면 등교 준비 (방학)	전면 등교 실시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중 등교 확대 - 밀집도 원칙 변경으로 전교생 2/3 등교 확대 직업계고 전면 등교 - 방역조치 강화 전제, 1·2단계 전면 등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한 방역준비 - 전 교직원·교3 등 백신 접종 - 급식 방역 관리 강화 -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 방역지침 보완·홍보 등 - 선제적 진단검사 활성화 - 심리 방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학 전·후 집중방역 및 적응주간 운영 거리두기 1·2단계 시 전면 등교 가능 -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백신 접종 추진, 급식 운영방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국가들도 학습 결손 및 정서문제 대응 등을 위해 등교수업 확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9월 가을학기에 모든 학교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 또한 9월 전면 등교수업을 계획하거나 현재도 전면 등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상의 목소리,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 6월 20일(일)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전면 등교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종 방역 조치 강화...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방역 조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 확대는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6월 14일(월)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1/3에서 2/3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실습이 많고, 취업역량 제고가 필요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두 번째는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여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대비한다.

[표2]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21.2학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기존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기존 2.5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기존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신설 단계
밀집도 기준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사항	2·3단계 유치원·초등 1·2 밀집도 제외 가능			
	2·3단계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 전면 등교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EVENT

꼭꼭 숨어라!

“교육부는 남은 기간 지금까지의 방역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취약요소를 발굴하며 전면 〇〇를 통해 학교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인 백신 접종은, 지난 4월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 유·초·중·고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8월에는 기타 대입 수험생과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는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이어질 예정이며,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감염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 방식을 권고하여 식사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방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 기구 소독 강화를 진행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안내하여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 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1,6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통해 최대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 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행할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도 안내하였다.

이 밖에도 실제 학교 내 감염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역 지침을 보완하였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 확대, 코로나 우울 등 정서문제 대응을 위한 심리방역 등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 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남은 방학 동안 취약요소 발굴 등 준비 상황 점검

새로운 학교 밀집도 원칙은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나, 지역 감염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나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가 스스로 추가적인 방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주 내 외의 적응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 등교 추진은 단순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학교로 다시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된 원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래형 수업혁신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업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미래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지속할 예정이다.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취약요소를 발굴하며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㉕

- 1 원활한 등교수업을 위해 개인위생은 더욱 철저히 한다.
- 2 사회적 거리두기 1m를 유지하며 급식을 먹기 위해 대기 중인 학생들
- 3 비말 차단을 위해 각 교실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



2학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 ㉔고등교육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글_ 정예영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 구성원 간 역할 분담과 학내 감염병 대응 조직 구성을 통해 학내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했던 비대면 수업을 원격교육 기반 고등교육 확산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속은 대학생들의 학습결손 발생 및 사회적·정서적 교류 축소 등의 우려를 심화시켰고, 대학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안전한 대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대학이 개별 여건에 맞는 판단 하에 안전한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전한 대면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

첫째, 대면 운영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높은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마련 시에는 올해 6월 초순 교육부가 실시하고 대학생 9만 4,000여 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63%가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대면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반영하였고, 대교협·전문대교협을 비롯해 총장, 대학 교무·학사관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은 초·중등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가 넓고 활동의 폭이 크며, 최근 20대가 전국 누적 확진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를 결정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면수업의 폭은 방역 지침 준수 전제 하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문대에서의 적극적인 대면수업 실시를 추진한다. 전문대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특성상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의 69%를 차지하는 만큼 대면수업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일반대에 비해 수업 연한이 짧아,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다. 이에 국가공인자격증 등의 취업 연계에 필요한 수업을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2학기 전문대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2021년 2차 추경)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 및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학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원격-대면수업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학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대면활동의 본격적인 확대 시기는 3분기 백신 접종 결과와 연계하여 판단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9월 말까지 우리 국민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대면 활동 확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 국민의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학내 대면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협의체와 협력 체계 구축... 철저한 대학 방역

안전한 2학기 캠퍼스 생활을 위해 대학의 방역은 지자체·대학협의체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대비한다. 우선, 대학 방역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 및 지원하여 촘촘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2021년 2차 추경)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캠퍼스 내 방역 관리 인력(2천 명)을 지원하고자 54억 원을 편성하였음. 방역 인력은 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한 강의실 방역 관리 방안 및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대학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을 세분화하여 안내한다. 또한 수업을 위해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공간 시간에 안전히 머물 수 있도록 강의실 등의 학내 공간을 개방하되, 외부인의 출입은 자제하도록 하여 대학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개강 직후인 9월 한 달간은 대학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대학 모두가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한다. 특히 학내 확진자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대학협의체가 함께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번이 바이러스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강화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자가격리 기간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보호와 관리를 강화한다.

2학기를 앞두고 다시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백신 접종 확대와 더불어 학내 방역을 꼼꼼히 점검하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원격 및 대면수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학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㉔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①미국

백신 공급 확대로 올 가을학기 등교수업 기대 높아

글_ 김지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육정책전공 박사 졸업예정

등교수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력 저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났다.

바로 이전 주의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2,832명보다는 16%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은 2020년 12월 14일 첫 백신 접종을 개시하였으며, 2021년 7월 8일 기준 3억회분 이상(332,345,797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미 전체 인구의 55.2%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았으며(183,237,046명), 완전 접종률도 47.7%에 이른다(158,287,566명).

공립학교 원격수업↑, 사립학교 등교수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미 CDC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혹은 지역 감염 수준이 높은 지역 학교에 임시 폐쇄 조치를 권고하였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역 교육 당국에 학교 폐쇄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구가 2020년 봄학기(1~5월) 도중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폐쇄하였다. 이후 각 지역 교육 당국은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왔다. 2020년 가을학기(8~12월)와 2021년 봄학기(1~5월)를 앞둔 시점마다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등교-원격 병행수업 방침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서 2021년 가을학기(8~12월)를 앞둔 현재는 다시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학연구소와 국가교육통계센터가 '학교 및 보육시설 재개방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에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8개월간 백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7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3,604,986명이다. 가장 최신의 감염 현황을 보여주는 최근 7일간의 평균 일일 확진자 수(7일 이동평균, 7-day Moving Average)는 14,885명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2021년 1월 10일 기준 평균 일일 확진자 수 251,897명에 비하면 무려 94.1% 감소한 수치이지만,

근거하여 실시한 월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대부분이 원격수업을 제공해 온 반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등교수업을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유형별로 제공 수업 형태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4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제공한 공립학교의 비율은 2021년 1월 82%에서 5월 79%로 감소하였다. 사립학교의 경우 조사에 처음 응답한 2월에는 33%가 4학년 대상 원격수업을 제공하였고 5월에는 30%로 감소하였다. 4학년 대상 등교수업을 제공한 학교의 비율은 공립학교가 1월 47%에서 5월 62%로, 사립학교가 2월 90%에서 5월 93%로 증가하였다. 8학년 수업 역시 4학년 수업과 마찬가지로 공립학교는 대부분이 원격수업을 제공해 온 반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등교수업을 제공해왔다. 8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학교의 비율은 2021년 1월 79%에서 5월 73%로 감소하였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2월 35%에서 5월 29%로 감소하였다. 반면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제공한 공립학교의 비율은 1월 46%에서 5월 64%로 증가하였고, 사립학교의 비율은 2월 88%에서 5월 91%로 소폭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수업 유형별 제공 현황에서 4학년과 8학년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던 반면 학교 유형별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영어학습자 학생에 대면수업 우선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봄학기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 무려 세 학기 동안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어 왔다. 실질적인 수업 시간과 학생의 학습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에는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등교수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력 저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났다. 가령 가정의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대면수업의 중요성이 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영어학습자 학생(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의 학력 저하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각 주정부와 지역 교육 당국은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연결과 휴대용 컴퓨터를 지원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와 영어학습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대면수업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2021년 여름학기 동안 많은 주정부와 지역 교육 당국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력 저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역시 여름학기 보충수업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가을학기 등교수업 추진, 지역 교육당국에 권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은 백신 공급 확대에 힘입어 2021년 가을학기 전면 등교수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CDC는 2021년 7월 9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돌아오는 가을학기에 등교수업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역 교육 당국에 권고하였다. CDC는 실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적용한다면 등교수업을 재개하더라도 학생 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 교육부 역시 2021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교원단체 역시 가을학기 등교수업 재개 계획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가을학기 등교수업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만 12세 이하 백신 접종이 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②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France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②프랑스

일상로의 회복을 위해 청소년만 12~18세 백신 접종

글_ 최지선 한국교육개발원 해외통신원

프랑스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다.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5,786,999명이며, 사망자 수는 111,197명에 이른다. 증감을 거듭하며 7월 초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0~4,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세 차례 대유행을 겪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3~5월경 첫 번째 유행을 겪었고, 2020년 10~12월경 다시 두 번째 유행을 경험했다. 두 번의 대유행과 봉쇄를 겪으면서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던 프랑스의 백신 접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세계에서 백신 접종 시작을 가장 빠르게 시작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4~5월경 세 번째 유행이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봉쇄를 결정하였다. 그 이후,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독려한 결과 프랑스는 백신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 대비 약 31.4%가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봉쇄도 해제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다시 델타 변이의 확산과 4차 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프랑스 교육부의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와 방역

세 차례 대유행 시기마다 정부는 견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전국 혹은 대도시 중심의 봉쇄를 결정했다. 슈퍼마켓,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 기업들도 모두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학교 역시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의 지속과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10~12월 2차 봉쇄시기에 등교수업을 유지한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등교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등교수업이 불가피하게 중지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에 대한 병행되는 경우 원격수업 동안의 학생 출석 및 학력 저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들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등교수업이 중단될 때마다 보건 분야 종사자, 경찰 및 소방관 등 지속적인 출근이 요청되는 직종 종사자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열어 운영하였고,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전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 연령의 학생들부터 최대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삼았다.

학력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학교 안팎으로 등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여론이 늘어나면서 프랑스 교육부는 최대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차, 3차 두 차례의 약 1~2달 봉쇄시기 중에도 등교중단은 각각

3~4주간으로 최소화하였으며, 전면 등교중단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교수업 일수를 확대해왔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원격수업일수를 줄이고 등교수업일을 늘이도록 하였다.

등교수업을 위한 프랑스의 방역 지침

한편, 등교수업은 엄격한 방역 지침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초기 등교수업과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 지침이 다소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엄격한 방역 지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또다른 문제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교육부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가 2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1월 2일부터 6세 이상 초등학교생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확대하였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프랑스 정부는 6월 17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도 학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하였는데,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1m 거리두기를 지침으로 정하였지만, 전면 등교 시 학생 수, 교실 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침이었다. 또, 급식실 소독 문제와 관련하여 인력 총원의 필요성, 교원 증원의 필요성, 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와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

등교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원격수업 동안 학생 출석 및 학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어린 학생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현장에서 속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학교 실내 체육수업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실내 체육수업은 2차 전면 등교 중단이 해제된 이후 5월 3일부터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시작, 새 학기 등교는 8월 말 결정

프랑스는 지난 6월 15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다.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모의 동의 방식, 백신 접종 일정 등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16~17세 청소년 중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시작된 바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결정은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차례 전국 봉쇄 중에도 최대한 학생들의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던 프랑스 교육부는 총리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6월 17일, 9월 새 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계획이며 새 학기를 앞둔 8월 말 확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이번 발표에서 다시 한번 교육부의 전면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 지침과 실제 확정된 등교 수업 여부는 등교 며칠 전을 앞둔 8월 말에 결정할 것을 밝혔다. ②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United Kingdom

코로나19와 해외의 교육 동향 ③영국

온라인 학교 설립... 빈곤층 학력 저하 해소에 예산 지원

글_ 강호원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국 및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코로나 19 규제 조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020년 3월 26일부터 발령된 1차 전국 봉쇄령에 따라 전면 휴교령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전국 봉쇄령이 조건부로 완화됨에 따라 잉글랜드에서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일부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재개되었다. 이후에도 잉글랜드는 2021년 1월 6일부터 3차 전국 봉쇄령이 발효되었으며, 다시 3월 8일을 기점으로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가 재개되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등교가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한 '4단계 로드맵' 중 3단계 규제 조치가 적용 중인데, 해당 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영국은 올 6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1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32,367명으로 집계되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의 연령이 만 18세까지로 내려온 상태이다. 7월 11일을 기준으로 영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중 86.9%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65.6%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이로써 현재 영국은 100명 당 백신 접종률(1차 접종 완료)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다.

영국, 온라인 학교 설립 원격수업 지원

전국 봉쇄로 인한 휴교 기간에는 핵심 직종 종사자의 자녀에 한하여 등교를 허용하여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이외의 학생에게는 전면 온라인 체제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체제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부의 '원격교육 우수 실제(Remote Education Good Practice)' 지침이 제시하는 일선학교의 원격교육 운영사례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나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등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 룬(Loom) 등의 비디오 녹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교사가 사전에 수업을 녹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 중에는 구글 폼즈(Google Forms), 카훗(Kahoot) 등의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실시간 피드백과 채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온라인 수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교사가 교수·학습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출력된 자료를 직접 학교에서 수령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학생이 수업을 지속하게 하는 한편, 완료한 과제는 교사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4월에 '오크 전국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라는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고

2020년 9월 학기부터 학령 전 단계부터 중등단계까지 학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녹화 강의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운영 첫 학기 평가 결과를 담은 오크 전국아카데미(2020)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만 차시의 수업이 제공되었고, 이용자는 47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교사 응답자 중 86%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내 확진자 조속한 식별을 위한 간이검사 도입

영국은 전국 또는 지역 봉쇄가 해제된 후에는 높은 단계의 규제 조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시 휴교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등교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들을 위한 원격수업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코로나19 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학년별 원격교육 최소 시간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일일 평균 3시간, 초등학교 3~4학년은 일일 4시간, 중등학생(7~11학년)은 일일 5시간이다. 원격학습을 통한 온라인 강의는 사전 녹화수업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을 모두 허용하며, 학생이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업과 숙제가 포함된다. 온라인 강의는 반드시 담당 교사가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앞에서 소개한 오크 전국아카데미와 같이 외부의 교육관련 기관에서 개발 및 배포하는 녹화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면 등교 재개를 맞아 일선학교가 실시한 다양한 안전조치들 중에는 반별로 쉬는 시간에 시간차를 두어 운영하며, '버블(Bubble)' 단위로 수업과 학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버블이란 기존에 한 반에 속한 학생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항상 같은 소집단끼리 모여 수업을 받고 이동하게 함으로써 학생 간 밀접접촉자의 규모를 줄이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등교에 시간차를 두어 운영 운영하거나, 학년별로 한 주는 등교하고 나머지 한 주는 가정에서 원격교육으로 대체하는 격주 등교 조치인 순환제(Rota System)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면 등교가 재개된 2021년 3월 8일부터 중등·후기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2회에 걸쳐 교내에서 코로나 집단검사를 실시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 검사에는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30분 내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검사인 측면유동검사법(Lateral Flow Test, 이하 LFT)이 도입되는데, 교내 확진자를 조속히 식별하고, 추적하며, 필요 시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의 학력 문제에 적극 지원

가정에서 원격교육이 진행될 때에는 저학년일수록

영국은 전국 또는 지역 봉쇄가 해제된 후에는 높은 단계의 규제 조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시 휴교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등교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부모의 참여에 따라 학생의 성취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부모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며, 온라인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휴교 중에도 원격학습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빈부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6월에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5,706억 6,000만 원) 규모의 캐치업 재정(Catch-up Funding)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0~2021년에 각 학교에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6억 5,0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209억 2,900만 원)를 편성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파운드(한화 약 5,497억 3,100만 원)는 초·중등단계(후기중등단계 포함)의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의 교내 보충수업(소집단 또는 일대일 지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정서·신체적 발달의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과 올해 여름방학에 중등학교가 운영하는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빈곤층 학생이 중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단계에서 뒤쳐진 학력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제공하게 하였다.

9월 새 학기 앞두고 전면 등교 원칙 고수

정부는 올해 9월 새 학기에도 역시 전면 등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원단체는 개학 전까지 중등 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학 전에 최소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정부가 계획 중인 4단계 로드맵이 실시되면, 지금까지 학교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 조치 역시 전면 완화된다는 점에서 전면 등교의 안전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학교에 적용되던 자가격리 조치 및 버블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LFT로 예방조치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에 교원단체는 LFT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실제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고 등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보다 정확한 안전지침을 발표하여 일선학교에서 교육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사업
**광복 이후 76년,
학교에는 여전히 ‘일제’가 남아있다**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 76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가 개정과 기념물 철거, 수업자료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8월 광복절을 맞아 충남교육청의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소개한다.

글_ 양지선 기자

‘약동하는 금강의 힘찬 물살은/세계로 뻗어나갈 우리의 의지...’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교장 고윤자)가 지난해 새롭게 개정한 교가의 가사다. 지난 1957년 개교한 금산여고는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김동진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60년 넘게 불렀다. 학교는 지난 2019년 친일 잔재를 없애기 위해 교가 변경을 추진했고,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의 의견을 반영해 1년여 만에 새로운 가사와 선율의 교가가 만들어졌다. 새 교가는 이 학교 3학년 임소현 학생이 작사와 작곡을 맡아 더욱 의미 있다.

금산여고와 같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해온 학교는 충남도 내 24곳에 달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중 4곳(임장초, 고남초, 금산여중, 금산여고)의 교가를 개정 완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시작한 충남교육청은 현재까지 교내에 게시된 일본인 교장 사진을 모두 공개장소에서 철거했고, 학생 생활규정 중 ‘동맹휴학(일제의 식민통치 및 교육에 항의한 행동),

‘백지동맹(시험 거부 및 백지 답안지 제출) 등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징계 항목 규정도 모두 삭제했다. 논산여고와 강경여중에서는 순결 등 성차별적 용어가 담긴 교훈을 개정했고, 가이즈카향나무(왜향나무)가 심겨 있는 학교는 신청을 통해 총 120곳이 폐기하거나 다른 수목으로 교체했다. 독재정권의 유산인 건물 머릿돌은 4곳에서 발견돼 철거하거나 설명문을 설치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인 교장 사진 철거 완료, 교가·교훈 개정 진행

충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일제 잔재 청산 제1기 사업으로 완결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를 제2기 사업으로 명명해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일제 잔재 청산 기준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일제 잔재 범위는 충남 소재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하의 모든 유·무형 잔재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토론회와 언론을 통한 홍보 계획 수립, 일제 잔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단죄문이나 설명문 설치,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권고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충남 지역 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연수도 실시했다. 지난 4월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수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과 실질적 방안, 제2기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안내했다. 성원기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제1기 사업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현장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학교와 동문회의 반대가 한계점으로 드러났다.”라며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계기를

- 1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 심어진 가이즈카향나무. 이 학교에는 가이즈카향나무가 20그루 넘게 심어졌는데,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통해 교육 목적으로 한 그루만 남겨 두고 모두 제거했다.
- 2 충남교육청은 교내에 게시된 일본인 교장 사진을 모두 공개장소에서 철거했다.



66

일제 잔재 청산은
우리 삶과 연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

99



만들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학기 중에는 교감과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 전체 초·중·고,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교가, 기념비와 시설물, 교장, 설립자, 이사장, 기관장 명단 조사도 완료했다. 교가에 남아있는 일본풍 음계(일본식 5음 음계인 요나누키음계), 기념비나 시설물 중 일본식 비석(비석의 끝이 뾰족한 사각뿔 형태)의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인물 조사를 통해 교육자료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 주도의 일제 잔재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교에서 향토사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했다. 각 동아리에서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나 문화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다.

일제 잔재 청산 통해 학교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충남교육청은 올해 일제 잔재 청산 사업과 관련해 8,4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일제 잔재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교가 개정 및 기념물 철거 등 일제 잔재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충남역사교사모임, 지역별 역사교육지원단을 활용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자료도 제작한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교육과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개발한 친일 청산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친일 청산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기념관,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 전투 현장, 독립기념관 등을 답사하는 코스로, 2학기 중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 총 3회 진행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 청산 과정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 장학사는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고,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라며 “학교가 그 자체로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살아 있는 교육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 체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글_ 박봉서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사무관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가시화되는 중이다. 다시 말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등 그동안 미래교육의 특징으로 언급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공학적 시도를 추진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교실, 대면 교육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교육은 기술 진보에 대응해 사회 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6~8월, 11~12월에 걸쳐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한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와 정책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 2년 한시 기구로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 과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이 추진단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교육부의 전체 역량을 집중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며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하여 3개의 자유팀

(미래교육전략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디지털인프라구축팀)으로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추진단 조직도



미래학교를 통한 교육 혁신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컨트론타워로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미래교육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추진단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484개교 702동을 선정할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 원(국비 5.5조 원, 지방비 1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한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직접 미래학교를 구상해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실현하며, 그 과정에서 미래학교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제도와 사업들이 실현되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교육 정책과제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원격교육 체제로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다양한 서비스 및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하고, 나이스(NEIS)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2023년 1차 개통, 2024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추진단에서는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논의

이와 함께 교육 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공감을 얻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책은 미래 준비 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 현장과 함께 미래교육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법, 윤리 기준, 인재양성 지표 등 세부규범)을 탄탄히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AI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변화는 제도적 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2년 7월) 등 예정된 정책 환경 변화에도 향후 2년간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미래교육 정책 논의의 일관성 유지 등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컨트론타워로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미래교육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②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국가교육위원회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제 꿈이 로봇 전문가잖아요. 올해 우리 학교에 처음 개설됐는데, 인기가 많은 강좌예요.

네,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교과목이 만들어질 거래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음, 앞으로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좋은 교육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기가 힘들더라고.

교육정책은 보수 진보를 떠나 멀리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초당적인 교육위원회라도 생긴다면 모를까?

어, 그럼 안 되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에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누가 내 얘기를 엿들었나?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학습자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점검

■ 국민 의견수렴·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비전과 장기적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비전과 장기적 교육목표 제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합니다.

학생·청년·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종 전문가

응.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이 맘에 드는군.

각자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니 중장기적 교육목표를 세우는 일이 참 힘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논의돼 온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중 출범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 캐스터
황준원
미래채널MyF 대표

“미래를 예보합니다”

미래 캐스터란 미래변화에 대한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직업이다. 황준원 미래채널MyF 대표는 '미래'라는 콘텐츠와 '기상 캐스터'라는 직업을 합쳐 미래 캐스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했다. 마치 기상 캐스터처럼 10분 내외의 짹막한 영상을 통해 미래 전망을 예보해주는 그는 정보와 재미가 있는 콘텐츠로 8만 4천여 명의 구독자를 사로잡았다. 황 대표를 만나 창직과 미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양지선 기자



66

창직이란 나에게 최적화된 직업을 만들어보는 것

99

창직(創職)이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이 기존의 노동시장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창직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창직을 통해 창업과 취업, 프리랜서 등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다. 이처럼 나만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는 창직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준원 미래채널MyF 대표는 '미래'라는 콘텐츠와 '기상 캐스터'라는 직업을 합쳐 미래 캐스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했다. 마치 기상 캐스터처럼 미래 전망을 예보해주는 그는 청소년과 청년층에게는 미래 진로에 대한 영감을 주고, 직장인과 중장년층에게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와 재미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미래채널 MyF'의 구독자는 8만 4천여 명, 총조회 수는 1,200만 회를 넘었다. 10분 내외의 짹막한 영상 속에는 고령화, 기후 위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다. AI 반려로봇 '벡터'와의 생활기나 스마트홈으로 꾸민 집을 보여주는 등 직접 경험한 미래 생활을 보여준 콘텐츠도

인기다.

그는 창직에 대해 “나의 장점과 관심사를 섞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미래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커리어가 다른 사람에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닌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필요한 일거리는 무엇인지, 내가 살고 싶은 최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나, 미래 캐스터란 어떤 직업인가?

미래의 우리 생활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강연도 진행한다. VR기기, AI로봇, 웨어러블 통역기 등 미래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고 후기를 남기는 콘텐츠도 만든다. 아직까지는 '쓸모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평이 대다수다(웃음). 막연하게 상상해 온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곤 한다.

한 개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충분하다. 대신 소재를 탐색해 관련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일은 늘 머릿속에 갖고 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을 메모하고 수정하는 작업이라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미래'라는 키워드와 연결 짓는다.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

둘, 창직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미래 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한 건 30대가 되고 나서였다. 진로를 늦게 찾았다. 대학 졸업 후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앞으로 트렌드가 무엇인지, 미래 유망 직종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니



1 황준원 대표는 유튜브 '미래제널 MyF' 채널을 운영하며 미래변화에 대한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강연도 진행한다.
2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미래라는 키워드와 연결 짓는다는 황 대표



아이들에게 목적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할 명분이 사라졌다. 단순히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학부모,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지금은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조금급해할 필요 없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면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셋, 창직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먼저 나에 대해 살살이 분석했다. 뭘 잘하고 못하는지, 나이대별로 성격은 어떠했는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니 A4용지로 80페이지가 나왔다. 공통적으로 몇 가지 성향이 나왔는데, 바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점이였다. 여기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발표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이 세 가지 재능을 접목하니 '새로운 미래 트렌드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였다. 이처럼 창직은 자기분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형화된 틀이 없다. 나의 장점과 관심사를 섞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주도적이고 자기결정력이 있는 사람이 창직하기에 적합하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

넷, 제일 기억에 남는 콘텐츠 주제는?

지금은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게 될 변화에 대해 다룬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예를 들어,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 또, 성실함의 개념이 미래에는 바뀔 것이라는 거다. 이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의 성실함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생각의 성실함이 중요해진 세상이다. 인간관계도 가족, 친구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것에서 이제 디지털상에서 1인 크리에이터, 혹은 AI와 소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섯,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 20대까지는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닌, 발견하는 시기다.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게 된다. 창직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직업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직업을 만들어보는 시도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홍보 전문가를 고객의 관점을 바꿔주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고, 여행 관광 가이드를 '추억 디자이너'라고 이름 붙였다. 창직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존에 있는 일이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다르게 정의하거나, 살짝 변형해 약간의 차별성을 만들면 된다. 이로써 나의 커리어를 소모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일도 줄어들고, AI가 내 일을 대체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마지막, 미래 직업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청소년들은 나중에 로봇이나 AI가 일자리를 다 뺏아가면 어쩌나하며 걱정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자동화로 대체가 될까?'라고 스스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의 특징은 단순 반복 직무거나 데이터 수집과 계산, 혹은 위험한 작업들이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싫어

하는 일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얘기하는 장래 희망과 거리가 멀다.

앞으로 고령화, 기후 위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날 일거리들이 넘쳐난다. 미래 유망 직종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코딩, 혹은 AI 전문가다. 요즘 코딩과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꼭 필요하겠지만, 이는 여러 직업 중 소수를 차지할 뿐이고 경쟁도 치열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가 될 것이다. 무작정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㉞

TIP BOX I



TIP. 1 창직 vs. 창업

분류	창직	창업
정의	창직은 스스로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신직업과 직무를 발굴 및 보급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보급하는 창조적 활동	창업은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이용해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혹은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
개념	창업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	창업은 창직 활동을 통해 발굴된 직업이 노동시장에서 운영되는 형태
운영형태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기업에 취업하거나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을 통해 반드시 기업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	새로운 직업이 발굴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의 경쟁 없는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 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같은 업종일 경우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쪼개기 단점)
구성 요소	창직가, 창직 아이디어, 지식, 기술	창업가, 창업 아이디어, 자본
직업(직무)명 유무	새로운 직업명(직무명)이 반드시 생긴다: 직업가치의 중요성	직업명(직무명)보다는 기업명이 생긴다: 기업가치의 중요성

TIP. 2 창직가 정신의 기본요소

창직은 직업적 가치성을 중시함으로써 직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사회변화를 읽고 미래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한발 앞서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게는 실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문제나 현안들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파악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마음도 필요하다. 대중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해 인식시키는 과정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강한 정신력과 끈기 있는 인내력은 필수다.

철길이라는 가시를 뽑다

안동

安

東

손끝에 가시가 박혔다. 이물감은 느껴지는데 통증은 없다. 살을 파고든 가시가 뼈를 휘감아 들고 여린 살은 굳은살이 되어가고, 통각은 그만큼 무디어졌다. 무감각을 타고난 듯 가시가 살을 찌르는데 아프지가 않다. 손끝을 누른다. 덜컹덜컹. 소리가 귀를 두드리고 들어온다. 칙칙폭폭.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汽笛)이 혈관을 가로막고 선다. 아득하고 아련하다. 저 너머에 태백의 기상이 담긴 낙동강이 있는데 닿을 수 없다. 철로가 길을 끊어버린 까닭이다. 손에 박힌 가시 같았던 철로를 걷어낸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8월 무더위의 종착지는 안동이다.

글_강지영 객원기자





독립투사들의 고향, 임청각

10명의 독립투사가 났다는 집, 임청각을 찾아간다. 임청각과 범홍사 칠층 전탑을 뒤에 두고 낙동강을 내려다본다. 뜯겨나간 철길이 놓였던 자리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벽(假壁), 그 너머로는 강원도에서 발원한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길을 가로막아서까지, 가옥을 뜯으면서까지 일본이 막아서고 싶어했던 열의와 열정이 낙동강을 채우고 있다. 그 가운데 애국(愛國)이라는 두 자를 적어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용솨음치며 가슴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임청각은 500년이라는 세월을 머금은 현존 최고(最古) 살림집이다.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이상룡 선생을 포함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10명의 출생지로 알려진 임청각은 건물이 뜯겨나가는 수난을 겪었다. 일본이 독립운동의 맥을 끊으려 철길을 놓는다는 명목으로 행랑채를 포함한 건물을 없애버린 것이었다. 99칸이었던 임청각은 49칸이 철거되어 현재는 군자정을 포함한 남겨진 건물만이

역사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

갈라지고 뒤틀리는 수모를 지켜보며 혈맥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주었던 임청각 앞 칠층 전탑을 올려다본다. 탑을 돌며 벽돌 하나하나에 쓰러린 시간을 읽는다. 뜯겨나간 기찻길을 넘어다보며 손을 편다. 손 가운데 박혀 있던 투박한 돌 같은 가시가 떨어져 나간다. 길을 옥편 기찻길 위로 나지막이 날아가는 새들. 활공하는 새를 보자니 차갑게 식은 손에 온기가 감돈다. 살이 되어가던 가시가 빠져나가더니 막혀있던 혈이 풀린 듯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강 위를 걷는다. 길 끝에 월영교가 있다. 월영교는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만들었다는 원이 엄마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다리다. 387미터에 달하는 이 다리는 한국 최장 목교(木橋)로 연인과 함께 걸으면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이 깃들어 있다. 뜨거운 햇살에 몸을 맡긴 채 물 위에 뜬 보름달 같은 월영정을 향해 간다. 월영정에 올라 달(月) 배를 타고 강을 거니는

이들을 본다. 낮에도 달을 불러내 여유를 즐기는 이 평화가 거저 주어진 것만은 아니리라. 희생과 애국, 독립을 가슴에 새기며 도산서원을 향해 간다.

퇴계 선생의 숨결이 깃든 도산서원

굽은 길을 차로 달린다. 길이 때로는 험틀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기며 기찻길의 잔영을 지워나간다. 들판을 채운 비가 바람을 따라 누웠다가 일어섰다. 예술품으로 채워진 예끼 마을을 거쳐 도산서원 초입으로 들어간다. 역사의 상흔에 덧대어진 자연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달린다. 녹음을 그늘 삼아 이른 곳에 퇴계 선생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바람과 두 그루 고목이 빚어내는 투명한 선율이 여객을 맞는다. 우물 앞에 멈춰서서 호흡을 고른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생전에 제자들과 학문을 도야하고 세사를 논하던 도산서당과 선생의 사후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증한 도산서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산서당을 거쳐 전교당에 이른다. 자신보다 한창 어린 기대승 선생의 서신을 예를 다해 대함을 보여주며 학문에의 진정성을 몸소 알려주었던 퇴계 선생. 돌아온 길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용기와 굳건함은 기세 높인 주장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인색하지 않고 의(義)를 들고 곧바로 따르는 데 있다.’고 말한 선생의 말을 되새겨 본다. 서원을 나서기 전, 퇴계 선생의 학문을 기리고자 ‘도산별과’라는 특별과거를 시행한 곳인 시사단을 눈에 담는다. 섬이 되어 놓인 푸르른 시사단에서 서원 건물에 켜켜이 겹쳐져 있던 학문에의 열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읽는다.

이육사 문학관에서 되뇌는 <광야>

나뭇잎이 빚어내는 초록빛 하늘이 녹색 물거품이 되어 안긴다. 철썩철썩. 나무와 바람이 빚어내는 물결이 가슴을 밀고 들어온다. 시간의 물을 타고 이육사 문학관으로 간다. 40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간 문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과 17번의 수감과 옥중 서거. 자필로 눌러 쓴 서신과 문학작품에서 눈물과 울분을 본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주했을 선생의 글귀를 앞두고 고개를 숙인다. 푸른 청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눈에 맺히는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다른 이름이리라. 투명한 초록빛 눈물을 삼키며 되뇌는 시 구절은 <광야>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험난한 시간을 견디고 백마 위에 앉은 선조들의 잔영을 삼킨다. 턱까지 차올라 있던 숨이 쏟아져 내린다. 고여 있던 시간의 웅덩이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번져나간다. ㉠



1 도산서원
2 임청각
3 이육사 문학관

'갑질'은 버리고 '미적 가치'를 연마할 때

글_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66

남의 가슴에 원한을 쌓으면서
잘 살 수는 없다.
아니, 잘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99

갑+질, 유행어가 되다

계약서를 쓸 때면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와 의무를 주지한다. 갑(甲)과 을(乙)이란 한자는 십간(十干)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갑은 주도권을 지닌 쪽(主, 上)이고, 을은 갑에 종속되는 비주도적인 사람(從, 下)을 말한다.

갑은 돈(보수, 재화)을 지불하거나, 고용(일자리, 직업)을 제공하거나, 조직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쪽(상사, 고위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본청과 하청업체(납품업체), 고용주와 종업원, 교수/교사와 학생이 바로 갑을 관계이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 갑으로부터의 횡포가 발생하기 쉽고, 그 반대는 비교적 적다.

'갑질'은 계약 권리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과 어떤 행위를 폄하할 때 쓰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신조어다. 당연히 갑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2010년대 이후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일상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현재 갑질은 기성세대/신세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특정 인물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 간에도 농담 삼아 갑질하지 말라는 말을 쓸 정도로 너무 익숙해지고, 우리 사회에선 이미 평범한 언어가 된 것이다.

오랜 갑질의 전통,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

현재의 유행어로 '갑질'이 되었지만 과거 우리 사회에서도 갑질의 전통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억울하면 출세하라'고까지 했을까. 1966년에 개봉된 영화 <회전의자>의 주제가 '회전의자(김용만 노래)' 가사를 보면 그 갑들의 '거들먹댐-으스댐-우쭐댐-뼈김-구박함-무시함'을 느낄 수 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아아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1절)//돌아가는 의자에 회전의자에/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을 때마다 앓을 자린 비어 있더라/...아아아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2절)" 이처럼 억울하면 출세한다는 말에는 을이 갑에게 당하는 설움-한-원망이 배어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출세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도 된다. 약자인 을이 강자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갑질할 수도, 갑질해도 된다는 말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는 '권력(힘)', '돈(재력)', '지위(명예)'에서 나온다. '뼈기고', '잘난 척하고', '으스대고', '으쓱대고', '거들먹거리고', '팔자걸음'하고, '에헴'하는 풍습을 만든다.

과거 조선시대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제도에서 '사(士)는 상층을 차지하기에 농·공·상 위에 군림하며 '내가 낸데!' 해대기도 하였다. 이런 부류의 습성에는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 같은 가치관은 없었다. 낮은 계층들을 '쌍놈' '아랫것'이라 부르며 멸시, 하대하였다. 당연히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가치들은 박약했다. 지금의 갑질도 어느 부분 이런 뼈뿔어진 양반의 갑질 전통과 닮아있다. 해방 이후 근현대, 지금까지도 이런 관습은 존속한다고 본다.

타자 배려의 전통

그러나 모든 양반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양식과 지성을 갖춘

선비정신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으나 그들은 갑질을 철저히 경계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타자를 배려하려 하였다. 예컨대 퇴계가 손자 안도에게 “내 자식 키우기 위하여 어찌 남의 자식을 죽인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끝내 데리고 있던 유모(乳母)를 내려보내지 않아 결국 안도의 아들(퇴계의 증손자) 창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전남 구례 운조루(유이주가 세운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의 뜻)에는 뒤주가 하나 있다. 여기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 즉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이 마개를 열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누구나 쌀을 퍼가도록 하였다.

경주 최부자의 ‘집안과 사회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 지침[六訓]’에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가진 자, 이른바 갑들의 도덕적 책임과 보편가치에 대한 자각을 잘 보여준다.

르상티망을 넘어 해원상생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설움-한-원망을 벗어나서 상생을 지향하는 말에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이 있다. 지배계층-피지배계층, 유산자-무산자 등등 갑을 관계에서 쌓여온 상극의 원(冤: 억울함, 원통함, 누명)과 한(恨: 원망, 한탄, 복수심)을 모두 풀어버리고 상생상화·상부상조하는 좋은 인연으로 살아 가자는 뜻이다.

원(冤)자는 토끼(兔)가 망(亡)을 뒤집어쓰고 움작 달짝 못 하는 답답한 모양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恨)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허리를 조아리고서(良) 고달파하는 마음(忄)을 보여주고 있다. 신분제도가 엄격히 유지되었던 고대사회에서 천한 신분(노예, 노비 등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픔-아픔-억울함-원통-분통을 잘 드러내는 글자들

이다. 반작용으로 우리나라에는 무당의 푸닥거리나 씨김굿에서 보듯 해원적 요소가 많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반감과 원한, 즉 복수감을 서양에서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고 한다. 니체는 권력의지로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에 대한 약자의 걱정을 그렇게 불렀다. 우리의 한(원한)에 해당하는 말이다.

선진국 노릇 하려면 갑질은 NO!

갑질은 타자에 대한 못질, 상처 내기다. 강자들이 횡포의 못을 박아 약자에게 상처를 만드는 일이다. “남의 가슴에 못질하면 니 가슴에도 못이 박히는 거여”(송유자의 시 <못 박는 아버지>)라는 말처럼, 남의 가슴에 원한을 쌓으면서 잘 살 수는 없다. 아니, 잘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갑-을의 복수가 반복되는 것은 서로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한 시간을 건디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줄여갈 것인가는 사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지력, 감수성을 내면적으로 터득할 필요가 있다.

다르게 보면,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는 동서양 어디에도 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있을 것이며,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이란 물질적 풍요나 소득 면에서만 상위라는 것이 아니다. 상생의 가치,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개인-사회-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과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비로소 선진국 노릇을 하고 또 대접받을 수 있다.

어떤 위치에서든 타자에게 갑질하지 않는 나라. 말짱, 손짱, 눈짱, 몸짱에서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배어있고 느껴지는 나라는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것은 아마도 각자 스스로의 가치를 ‘미적 차원’으로 높여가는 실천, 노력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

EDUCATION NEWS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교육부는 서울문백초등학교 박찬규 선생님이 지난 6월 ‘한국판뉴딜 이달의 인물’(디지털뉴딜 분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한국판뉴딜 이달의 인물’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박찬규 선생님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후 퀴즈 형식의 질문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책 읽기 프로젝트’, 온라인 환경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제작하는 ‘온라인 협력활동’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선생님은 ‘한국판뉴딜 이달의 인물’에 선정된 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학생 개인별 맞춤 수업이 가능해졌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판뉴딜 이달의 인물’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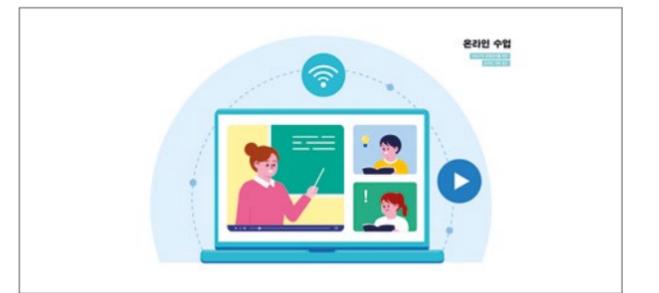


초·중·고 교실 79%에 기기급 무선망 구축 완료

한국판뉴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PC 교체 등 디지털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 31만 교실에 기기급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노후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교원에게 최신 기종 노트북 등 PC 25만여 대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수학습 혁신 및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 무선망 구축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일반교실 23만 실(전체 일반교실 대비 94%)을 비롯해, 일부 특별교실·학습지원실(도서관, 동아리실 등) 등 총 31만 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무선망 설치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학기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38만 실)에 기기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학교 무선망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전국의 학교 무선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원격지원, 현장출동 등을 통해 장애에 대응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교에서 무선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FOCUS 01

온택트 워크숍 '방구석 프로그래밍' 탐방

양만주 명예기자

Q: 온택트(ON-tact) 프로그래밍 워크숍 '방구석 프로그래밍'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로꾸꺼연구소> 소장 머리 커 인철(인철+메이커)입니다. '방구석 프로그래밍' 워크숍은 컴퓨터과학이 아직 생소하신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로봇 교구를 만들며 쉽고 재미있게 처음 접해보고 "나도 배울 수 있다."라는 시작점을 제공해주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 탐구공동체 <로꾸꺼연구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 및 주관하였습니다. 6월 22일(화)과 29일(화) 2회에 걸쳐 퇴근 후 각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봇 교구를 온라인 연수에 이용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교구 업체에서 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였습니다.

Q: '방구석 프로그래밍'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워크숍 첫째 날에는, 컴퓨터과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컴퓨터과학'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제해결을 위해 컴퓨터, 컴퓨팅사고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이미 컴퓨터과학이라는 분야에 속하는 것이예요.

워크숍 둘째 날에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원주 개념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직접 만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여 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래밍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주제로는 '전자 각도기 만들기'로 하드웨어를 입력장치로 이용하고, 측정값을 이용하여 각도의 합을 자동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보았습니다.

Q. 다양한 영역 중 왜 프로그래밍인가요?

A. 워크숍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로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입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반응에서 유의미했던 점이 바로 과학과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나게 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문제 분석을 통해 해결 '알고리즘'을 생각해내고,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표현합니다.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발명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대는 대부분의 활동이 컴퓨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프로그래밍'이라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ONORARY REPORTER

FOCUS 02

독도교육올림픽 vs. 도쿄올림픽, 맞수대결!

강은아 명예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그것도 최대한 확대를 해야 보일 정도로 작고 교묘하게 넣어 사용했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음을 보았기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경북교육이 뿔났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이 '2021 독도교육올림픽'으로 맞수를 둔 것이다. 올바른 주권의식을 갖고 평화의 섬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맞수대결에 그 길을 따라나섰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원장 김옥례)은 지난 7월 14~16일까지 3일에 걸쳐 각 부서별 독도수호 릴레이 마라톤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 교원연수의 기획·운영을 맡아 경북교육의 실제적 브레인 역할을 해 온 초·중등 교육연구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독도사랑의 마음을 과시했다.

여기에 질세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연수를 주관하는 행정연수와 주무관들과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총무과 주무관들 모두가 이번에는 '울진에서 독도까지' 독도수호 릴레이 마라톤에 주목하고 그 출발선에 선 것이다.

울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216.8km로 혼자서 뛰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다. 하지만, 각자 100m씩 2,168명이 나누어 달리면 함께 독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태극기를 들거나 독도 티셔츠를 입는 등 독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괜찮다고 마음을

모으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100m를 뛰는 것이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마음만은 오직 독도수호에 있었음을 서로 느끼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개인 인증사진을 찍는 시간에는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유의 제스처를 취해 독도를 향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한 교육연구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태극기 든 양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위 동료들이 독립투사의 모습이 느껴진다고 해 더욱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사진을 올리며 서로 보고 보여주면서 독도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6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벌써 인증 페이지가 46페이지에 전체 410건으로 단체로 참여한 인원을 더하면 머지않아 독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1882년

흰색 바탕에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는 검은색 건·곤·감·리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국기이다.

태극기는 언제 처음 사용되었을까?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본래 조선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1882년 5월 14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인 속칭 '이응준 태극기'이다. 이후 박영효가 1882년 9월 25일 일본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이때 공식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자, 국기로서의 태극기도 없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소용돌이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었기에 3·1운동 시기 들고나온 태극기의 도안, 의병 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이 모두 달랐다.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감격을 표출했다. 1948년 7월 1일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국기로 태극기를 채택하였다. 이때 지금의 태극과 사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규격을 통일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오늘날까지 준수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태극기를 휘날릴 수는 없지만, 이날만큼은 태극기의 의미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 2

2021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K-MOOC에 방송사와 함께 만든 교양 강좌가 도입된다고?

교원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 구제가 가능해요.

9월 24일부터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학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부터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MOOC: 마스터클래스,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제공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6월 23일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매년 2월 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예정)부터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전산 확인 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부터 **교육시설안전에 위한 안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등
교육시설법 안전제도 운영

7월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9월 24일부터 **국립대학의 용도 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을 대학회계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국립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대학회계 귀속 근거 마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